

본당 소식 및 안내

✧ 1월/2022 반 모임지 '올림과 잠김' 나왔습니다.

* 한 부씩 가져가셔서 기도과 묵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활동단체 소개

* 본당 신자들의 1인 1신심, 활동 단체 소속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한 단체는 미사후 3분 정도 요약하여 단체 소개 및 회원 모집을 위한 등록 시간을 드립니다. 단체 홍보나 소개 그리고 등록을 원하시는 단체는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본당 달력 왔습니다

* 사무실에서 가정당 2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재능 기부 교육 신청 개강

* 의료 특강 : 개강 : 1월 23일 13:00:-14:30

제목 : 클리닉 진료의 모든 것.A to Z

* 사진반 개강: 2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11시

* 꽃꽂이: 매월 넷째주 수요일 1회 11시

* 성가! 제대로 알고 부르자:

1. 특강시간; 1월 9일 13:00 -14:30.

✧ 도르가외 뜨게질 강의 안내

* 일시: 1/26(수) 10:45분 마리아홀에서 코바늘 기초및 수세미 뜨기 강의 있습니다.

* 준비물: 코바늘(Size 3.3-5)

✧ 성탄 구유 예물

* 성탄 부터 1/9일 주님 세례 축일날까지 제대앞 구유에서 기도하시며 봉헌하신 예물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달.

✧ 주일학교/안글학교/영어미사 개약: 1/09/2022(주일)

✧ 성탄 구유 및 장식 정리 정돈 도움 필요합니다.

* 1/9(일) 11:30분 영어미사 후 12:30분

* 대성전 구유 및 성탄 트리, 로비트리, 지붕위 Lights, 등

✧ 2021년도 단체 및 반 별 다과 봉사 일정

날짜	배식	담당 단체 / 반
1/09/2022	다과 봉사	NV2 반
1/16/2022	다과 봉사	NV3 반
1/23/2022	다과 봉사	NV4 반
1/30/2022	다과 봉사	RC1 반

□ [사랑을 전하십시오]

- 김 재 호 -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에 조류 보호지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곳에 회색 기러기 한쌍이 날아 왔습니다. 조류 연구가들은 이 기러기를 정착을 시키고 보호해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암컷 기러기를 포획해 날지 못하도록 날개 한쪽을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자 기러기 부부는 따뜻한 지중해로 날아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었지만 암컷 기러기가 날수 가 없기 때문에 수컷 기러기도 함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년 중 가장 추운 1월이 되니 한파가 몰아 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러기 부부가 얼어 죽는 일이 생길지 몰라 두마리를 따뜻한 우리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날지 못하는 암컷 기러기는 쉽게 옮길수 있었지만 수컷 기러기는 잔뜩 겁에 질려 혼자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암컷 기러기는 거의 주는 먹이를 거부하고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수컷 기러기가 호수에 나타나 큰 소리로 울어대며 암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에 한번 꼴로 찬바람이 몰아치는 호수 위를 큰소리로 울면서 날아 다녔습니다. 2월이 될 때까지 수컷 기러기는 온 사방을 돌아 다니며 암컷 기러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드넓은 호수의 이쪽 물가에서 시작해 저쪽 물가 끝까지 온 구석을 샅샅이 찾아 다녔으며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도랑까지 찾고 다녔습니다. 수컷 기러기의 암컷을 찾아 헤매는 그 정성을 지켜본 조류 연구가들은 너무나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컷 기러기의 날개 한쪽에 붙였던 테이프를 떼어내고 호수로 옮긴 후 풀어주었습니다. 이들이 지난 후에 수컷 기러기는 암컷 기러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컷 기러기가 큰 소리로 울어대며 물 위를 날아가자 암컷 기러기도 트럼펫 같은 울음 소리를 내며 반갑게 응답을 했습니다. 수컷 기러기는 공중으로 날아 올라 크게 한 바퀴 원을 그리더니 암컷 기러기가 있는 물위로 내려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재회를 한 한 쌍의 회색 기러기는 목을 길게 뽑아 서로 비벼대고 부리를 맞댄 채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정하게 공중으로 높이 날아 올랐다가 물위로 떨어지는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조류 연구가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 왔습니다. 새들도 사람들 못지 않게 애뜻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입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날아 가고 있는 기러기 부부의 모습에 사랑이 가득 담긴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허울뿐인 명예를 얻는 건가요? 혼자만이 즐길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다는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한 귀한 일이 아닐까요? 하느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이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우리들의 정성 - 감사합니다

1/02/2022	주님 공연 대축일 (우편+ Online)	\$ 4,560.00
12/29-1/2/22	미사 예물	\$ 1,160.00
1/02/2022	감사 언급*	\$ 1,240.00
1/01/2022	천주의 성모님 대축일 언급	\$ 5,230.00
12/26/2021	성모님상 초 봉헌	\$ 204.00

✂ 감사 언급:현종석 라우렌시오&신미정 쟈마 가정
하상바오로회, 익명 가정 #1,

✂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봉헌, 기도용 초 구입 안내

- * 축일 미사: 2/2(수) 아침 10시
- * 1년 동안 사용할 제대초 & 감실초 봉헌 하실 분들 환영
- * 초 봉헌 및 구입 신청 : 1/23(일)까지, 사무실 or 자모회

미사 참석 인원 수 (1/01 & 1/02 /2022)

미 사	성인	미성년(1-17세)
1/01/22 대축일 미사	219	27
주일 8시 미사	37	0
주일 10시 미사	172	34
11:30am 영어 미사	0	No Mass

✂ 성경 봉사자 모집 및 재교육

* 자격: 창세기 그룹공부 및 연수를 수료하신분

✂ 성경 공부반 모집

* 창세기 과정: **매주 1회**

* 대상: 창세기 그룹 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 탈출기 과정: **매주 1회**

* 대상: 창세기 그룹 공부와 연수를 수료하신 분

✂ 미사 시간 매일미사 숙독권장.

* 미사 독서, 복음낭독시 매일미사 숙독에 관하여 한시적 허용.

✂ 사외 복지부에서 알립니다.

* 본당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변 교우 가정을 사무실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당 사회복지부 예산에서 지원 예정, 대상자 파악 및 선정 과정에서 모든 개인 정보는 선정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 부고

* 김 현 요한: 1/04/2022 새벽에 지병으로 선종(향년 84세)
저희 본당 8대 사목회장님, 성가대, 등등 오랫동안 본당 위해 여러 분야에서 쉬임 없이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 가족: 부인: 김혜자, 자녀: 김 진(아들), 김 린(딸)
* 고인과 가족들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자 교리 시작

* 일시: 1/9(일) 10am 교중 미사후 교리실
* 문의: 윤선희 엘리사벳 선교부장 (248) 659-2462
* 119 운동 - 1년에 1 사람의 영혼 구원 사업

전례 봉사자 안내

		1 / 09 / 2022 주님 세례 대축일	1 / 16 / 2022 연중 제 2 주일	1 / 23 / 2022 연중 제 3 주일
교중 미사	주보배부	None	None	None
	미사안내	이상래, 손우원	장재훈, 김지훈	이상현, 김지훈
	복 사	현종석, 박재범	고현태, 민병선	유한구, 이주석
	독 서	최봉열, 윤선희	최승호, 우선아	최진욱, 정 진
	해 설	인경원 에스텔	지연희 스텔라	현종석 라우렌시오
	성체분배	박대원, 백도광	서정복, 엄동화	김태화, 오예설
영어 미사	M. C.	Emily Kim	Sooah Park	Michelle Baik
	영어독서	Evan Han, Yujin Choi	David Yun, Brien Lee	Alice Choi, Julia Park
	Altar Serve	Leo Kim, Leo Kim	David Seo, Angela Kim	Dominic Tcheon, Hayden Choi
	Celebrant	Fr. Gary Wegner	Fr. Sung Jin Lim	Fr. Tien Dinh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